

다산포럼

광복 70주년, 나라의 흥망을 생각하다



김태희 다산연구소장

지난 5월에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로마 제국과 르네상스의 유적을 보고 싶었다. 아름다운 남부 해안을 다니면서 구글 지도를 빙빙 돌려 본다. 지중해에 이탈리아 반도가 장화 모양으로 쭉 뻗은 모습. 이탈리아는 지중해의 패권을 잡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는 느낌이 단박에 들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와는 사뭇 다른 지정학적 원리가 작동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했다. 5세기 서로마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는 분열을 면치 못했다. 19세기 초에야 통일이 진전되었다. 로마제국의 중심지 포로 로마노는 제국 몰락 후 흙 속에 묻혔다가 18세기 와서야 발굴되기 시작했다. 영화

로웠던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생각했다. 로마의 선진국이었던 그리스가 요즘 겪는 곤란한 지경을 보면서 더욱 실감한다. 다음 달 8월엔 광복절과 국치일이 함께 있다. 나라의 흥망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듯,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결정되지 않는다. 1910년 8월 29일, 나라가 망하는 날치고는 너무 조용했다고 한다. 몇 명의 선비가 자결했을 뿐 대부분은 일상적인 생활을 했다. 기실 나라는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었다. 일본의 집요하고도 교활한 작업에 의해 국권은 여러 단계를 거쳐 하나둘 일본에 넘어간 뒤였다. 그 새 우리의 저항이 없을 리 없었지만, 하나씩 각개격파 당하고 말았다. 국치일처럼 1945년 8월 15일도 조용했던 모양이다. 광복이 도둑처럼 몰래(?) 찾아왔기 때문이다. 광복(光復)! 빛을 되찾다. 예측 상태를 벗어났다든 '해방'이란 말도 국적이어서 좋지만,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는 '광복'이란 말도 필연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 좋다. '주역'의 복(復)괘는 박(剝)괘에 이어 온다. 박이 다하여 복이 된다고 해석한다. '주역'의 원리가 그렇듯 늘 세상은 변

한다. 물극불반(物極必反). 거의 모든 것을 박탈(剝奪)당한 절망적 상황에서 씨앗을 남기고 희망의 싹을 틔워 되찾는다. 광복은 참으로 절절한 말이다. 1919년 3월 1일, 조선왕조 내지 대한제국이 망한 날로부터 9년 후였다. 우리는 독립을 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나라를 잃은 순간부터 광복의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1930년 3월 1일 즈음에는, 심훈이 '그날이 오면'이란 시를 쓰고 노래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 삼각산(三角山)이 이리나 더듬실 춤이라도 추고 / 한강(漢江)물이 뒤집혀 뿔소슴칠 그날이, / 이 목숨이 끊지기 전(前)에 와주기만 하라! / 나는 밤한울에 날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鍾路)의 인경(人聲)을 삼으리라" 삼각산이 일어나 춤을 추고, 한강물이 뿔소슴칠 그날, 광복의 그날이 왔다. 기쁨에 겨워 춤을 치겠다는 심훈은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뜬 후였다. 그때부터 어언 70년.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었지만, 빈곤을 벗어나고 인권이 신장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아직도 분단의 벽은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지르고 있다. 일본은 시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어둠 속에 빛이 있듯, 빛 속에 어둠이 있다. 요즘 여러 조짐이 예사롭지 않다. 나라의 운세와 흥망을 다시 생각해 본다. 그때 나라가 왜 망했는가? 국가권력은 소수 벌열(齔閥) 가문이 장악했다.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서울의 소수 유력 가문이 상층부를 장악한지라 그들 유력 가문에 줄을 대야만 간신히 출세할 수 있었다. 공적 권력은 사유화되고, 부패가 구조화되어 갔다. 정치권력의 독과점 속에 제대로 된 정치는 사라졌다. 근거 없는 낙관도, 실천 없는 비판도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위기감 속에서 행해지는 절실한 고민과 작은 실천이 모여 나라의 운세를 바꿀 것이다. 마침내 광복 100주년이 될 무렵에는 대동강을 건너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고속열차가 대륙을 횡차게 달릴 것이다. 삼면의 해양에는 여러 나라를 다녀오는 원양 선박으로 붐빌 것이다. 잃었던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달으며, 우리 함께 어게 걸고 앞으로 더 나아가 갈 때다.

서재, 세상을 말하다

장훈의 서재 이이엄(而已)



박철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19세기는 여학문화의 개화기이다. 여학문화란 양반들의 문화가 아닌 일반 서민들의 문화를 가리킨다. 일기명세(一枝鳴世 : 한 가지 재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린다)란 말처럼 이 시기의 여학 지식인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특기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남겼다. 이는 그들이 지식인층에 편입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지식인층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여학 지식인이 장훈이다. 장훈(張混, 1759~1828)은 자가 원일

(元一), 호는 이이엄(而已)이며 본관은 결성(結城)이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늘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였다. 9세에 글자를 배우기 시작하여 15~16세에는 이미 경사를 비롯하여 제자백가와 시문집을 널리 읽었고, 20세 때에는 부잣집에 기숙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가난을 이겨보고자 이런저런 일들을 해 보았지만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장훈은 자신을 파는 심정으로 당시 권력의 실세였던 김중수(金鍾秀, 1728~1799)에게 편지를 써 벼슬자리를 구걸했다. 지식인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버렸던 것이다. 장훈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김중수는 규장각의 하급 아전자리를 마련해줬다. 여기서 인정받은 장훈은 규장각 감인소(監印所)에서 인쇄한 책의 교정을 담당하던 사준(司準)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녹봉이 넉넉지 않아 가난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이후 장훈은 25년 동안 규장각에서 간행하는 수많은 책의 교정을 담당하였다. 장훈의 서재 이름은 '이이엄'이다. 한

문에서 '이이'는 문장의 끝에서 주로 '~일 뿐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종결형 어미다. 보통사람들의 서재처럼 무슨 무슨 '재(齋)'나 '당(堂)'이 아닌 '엄(一)'자가 끝에 붙어 있는 게 범상치 않다. 장훈은 왜 이런 이상한 의미를 지닌 글자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서재에 편액으로 걸었을까? 이이엄은 본래 당나라 시인 한유의 '허물어진 집 몇 칸뿐이다(破屋數間而已矣)'라는 시구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시는 한유가 노동이란 문인에게 보낸 시의 일부인데, 다 쓰러져가는 노동의 집을 묘사하고 있다. '엄(一)'자는 속이 텅 비어 있다. 장훈이 서재 이름에 '엄(一)'자를 넣은 것은 바로 자신의 그 가난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여기에는 절살고 못살고, 오래살고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을 따르면 그만이라는 장훈의 생각이 들어있다. 장훈은 인양산 유목동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노년을 그 곳에서 보낼 심산이었다. 그러나 너무 가난하여 그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50관을 주고 땅을 산 장훈은 300관을 마련치

못해 10년이 지나도록 집을 짓지 못했다. 가난이 그의 마지막 소원마저 가로막았던 것이다. 평생 가난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건만 노년을 보낼 집 한 칸 얻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이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요즘 보통 사람들의 삶과 너무도 닮아 있다. 그러나 장훈은 그렇게도 그리던 집 몇 칸을 마침내 완공하였다. 그리고는 '이이엄'이란 편액을 걸었다. 그의 서재는 텅 비어있었지만 천명을 따르면 그뿐이라는 생각만큼은 '이이엄'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산다는 게 별것인가. 하늘의 뜻을 따르면 그만이지.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지버리는 기존 시대부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도 담겨있다. 이런 장훈의 정신은 그가 만든 아동용 교재를 통해 어린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다시 19세를 관통하여 지금도 우리 의식 속에 흐르고 있을 것이다. 19세기를 돌아볼수록 장훈의 힘이 크게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社說

금호산업 매각가 턱없이 높은 이유는 뭔가

금호산업 채권단이 1조 원이 넘는 금호산업 매각 가격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주부터 지역경제계는 크게 술렁였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제시한 금액은 애초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매각 협상은 대략 7천억~8천억 원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채권단이 실사 가격보다 2배 가까이 높게(1조218억 원) 책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금호산업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던 박 회장과 금호아시아나는 예상치 못한 가격 수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산출된 금호산업의 공정가치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이 1조 원이 넘는 매각가를 책정한 것은 미래에셋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금호산업 지분 8.8%를 보유한 최대 단일주주인 미래에셋은 2006년 당시 금호그룹 계열사였던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로 나섰다. 이 때문에 높은 매각가 책정 역시 당시의 투자 원금 회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매각가가 제시되자 시중에는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박 회장과 거래 무산 절차를 밟기 위한 모종의 저의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그중 하나다. 자금동원 능력이 부족한 약점을 이용해 사실상 금호그룹 목조이기애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래에셋에 대해 지역경제계의 굵직한 시선이 물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채권단으로서만 1조 원이라도 더 받으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역에 대한 공헌도를 생각하거나, 상도의 때문에 자금이 여유가 있는데도 대기업들이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터무니없이 높은 매각가 제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역의 반응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 회장은 지난 5년의 구조조정 과정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채권단은 박 회장과 협상이 결렬돼 향후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적인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적절할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

공소시효 폐지 지역 미제사건 해결 계기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지역 미제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광주·전남 지역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은 16건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내방동 인산부 살인 ▲용봉동 여대생 테이프 살인 등 10건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전남에서는 ▲나주 드림길 여고생 살인 ▲목포 여대생 살인 등 6건이 영구 미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건이 많이 흐른 사건들인지만 경찰로서도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더군다나 광주나 전남 모두 수사 전담팀에 각각 2명만이 배치돼 제대로 수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담팀 외의 사건은 지역 관할서가 맡고 있지만 아예 담당수사관조차 없다. 이 때문에 다른 강력사건에 치여 장기 미제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혀내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엔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 인원 보강 등 제대로 된 수사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자식을, 아내를 비명여 보낸 가족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날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억울한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가족들의 깊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지 않겠는가.

기고

혁신도시, 운전면허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열다



엄지영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 지원부장

사람과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의 애로점을 귀담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면서 적극 해결해 줄려고 할 때 그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듯하다. 갑작스런 직장 이전에 따라 물설고 낯선 지역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긴 직장인들에게 자기의 생활불편을 들려주고 해소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립된 무인도에서 구조선을 만난 듯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바쁜 일정으로 그동안 미뤘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직접 찾아와서 해준다면 금상첨화 일 것이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과 연계한 공

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우리 지역 나주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섰다.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 혁신도시에 새롭게 동지들을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총 16개 기관이며 그 중 2015년 7월 현재 이전을 완료한 기관은 14개소로 실제 근무인원이 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직 이전을 하지 않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입주 예정 기관의 입주가 마무리 될 경우 근무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급적급직한 공공기관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대외 인지도가 상승하고 경제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그동안 소외되고 침체되었던 지역 경기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 기반을 두고 가족과 떨어져 나 홀로 이주하였거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이주한 직장인들의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특히 바쁜 일상에서 평일에 처리해야 하는 은행업무나 운전면허 적성검

사와 같은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무심코 지나친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광주 905명, 전남 975명으로 광주·전남에서만 총 188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원거리 직장 이전에 따른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임직원 대상, 현장 맞춤형 면허 행정 서비스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월 1회 이상 운운에 들어간다. 찾아가는 운전면허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사무 공간 제공과 행정 지원을 실시하고,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적성검사, 갱신, 재발급,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의 면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임장 첨부시 가족을 위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여 많은 직원들의 이용이 예상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등 면허업무가 필요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오전에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걸쳐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시험장에서 새 면허증을 제작하여 오후에 전달하는 형식이다. 한국전력공사 장비관리부장은 "아직은 이주 생활이 낯설어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면허시험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 당황하는 직원들이 많았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적극 반기는 모습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살리기에 앞장서는 교통전문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 외에도 우리지역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임직원대상으로 확대되어 더 나은 면허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빠른 정착과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해 본다.

無等鼓

무등산 주변 산수의 풍광이 뛰어난 곳에 어김없이 누정(樓亭)이 자리하고 있다. 누정은 다락 구조로 높게 지어진 누각(樓閣)의 '누(樓)와 경관이 좋은 곳에 세워진 정자(亭子)의 '정(亭)이 합해진 말이다. 소재원을 비롯해 식영정, 환벽당, 풍암정, 송강정, 명옥헌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선비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은둔하던 장소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고 정신수양을 하던 곳이다.

간여 동안 산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명옥헌은 7~8월 땀방울 속에서 붉은 배롱나무꽃이 만개하면 별천지로 변한다. 하지만 모처럼 시간을 내 정자를 찾았다가 그만 기분을 상하는 일도 종종 있다. 얼마전 풍암정을 찾아 갔을 때는 한 방문객이 대중음악을 크게 틀어 놓은 채 드러누워 있었다. 명옥헌은 마을입구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음에도 몇몇 방문객은 연못 앞까지 차량을 끌고 들어와 낚시를 켜 푸르게 했다. 일부러 '삼'을 찾아 온 다른 방문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다. 최근 20~50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어느 '2015 여름휴가 설문조사'에서 60% 정도가 여름휴가를 갈 것이라고 응답했다. 휴가를 가는 주요 목적으로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46.1%)와 '스트레스 해소'(26.5%)를 꼽는 이가 많았다. 20~30대 직장인들은 휴가지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바다'와 '강'에 이어 '우리 집'을 택하기도 했다.

누정(樓亭) 피서

무등산권 정자는 개인적으로 환벽당은 매화 피는 시기에, 풍암정과 명옥헌은 한여름에, 송강정과 소재원은 눈 내린 겨울에 즐겨 찾는다. 이 가운데 풍암정은 원호계곡 하류 부근에 위치해 맑은 물소리가 가슴 밀바닥까지 시원하게 하는 곳이다. 풍암정을 둘러 뒤 계곡 물소리를 벗 삼아 흐트란 '무등산 의병길'을 걸으며 1시

최고문 의 062-227-9600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